

2026. 8. 24

금융 Weekly Insight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업종 내 우위 변화 국면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8월 넷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79.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1.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금융업종 주간 수익률은 보험(+3.9%)이 상승한 반면 은행(-3.5%), 증권(-7.0%) 등은 하락.
- 美 장기 국채 금리 상승 국면에서 美 금융주는 아웃퍼폼. 한국 또한 금리상승 관련 금융주 영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음.
- 시장 컨센서스와 같은 점진적 금리 상승 기조 하에서는 1) 보험이 신규투자이익률 상승, 부채 부담 규모 축소 등에 따른 수혜가 가장 크고, 2) 은행은 NIM 상승 및 판관비 하락에 따른 ROE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금융 Overview

- 은행 - 글로벌 은행주와 다른 흐름에 주목: 은행 업종은 w-w 3.5% 하락하며 KOSPI(w-w -0.9%)를 언더퍼폼. 지난주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핵심은 미국 국채의 장기 금리 상승. 이는 미국 증시는 물론 국내 증시에서도 IT업종의 조정과 은행업종의 상승을 야기. 장단기 금리차 확대는 통상적으로 은행의 이자마진 개선을 시사하기 때문. 물론, 관건은 속도인데, 지난 FED의 금리 인상 사이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가파른 금리 상승은 결국 자산건전성과 보유 채권 가치 하락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 필요. 다만, 현재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된 것과 같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고, 경제 회복이 수반된다는 가정 하에서 보면, 은행은 대출 수요 회복과 NIM 상승이라는 이자이익 성장이 판관비 증가대비 견조하게 나타날 여지가 크다고 판단.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의 operating leverage 확대에 따른 ROA 및 ROE 개선을 시사. 즉, 상반기 국내 은행들의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열 증권사 실적 호조에 은행의 구조적 ROE 개선이 가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향후 은행의 이자이익 성장에 따른 ROE 개선에 대한 확인 및 가시성 제고가 은행주의 Re-rating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 증권 - 거래대금 축소 + 금리상승 부담감: 증권 업종은 w-w 7.0% 하락하며, 금융 업종 내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시현. 높은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에 기반한 1) 현재 진행형인 거래대금 축소 및, 2) 채권-주식 등 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른 트레이딩 손익 감소 우려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단기 모멘텀 악화로 주가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판단. 다만 우려하는 채권운용손익의 경우, 이미 금리 상승 속도가 점진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회사별 우려 대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관건은 거래대금 축소-주식가치 하락 등 상반기 높았던 기저효과 대비 하반기 이익 방어폭이 될 전망이며, 해당 관점에서 운용 손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종목들의 비교우위가 업종 내에서는 부각될 수 있을 전망.
- 보험 - 금리 상승기 수혜 부각: 보험 업종은 w-w 3.9% 상승하며, KOSPI 지수를 아웃퍼폼. 보험업종의 경우 1) 금리 상승에 따른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 및, 2)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의 방어주 성격이 부각되었음. 특히, 보험업종은 부채(보험 계약) 구조 상 장기물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상승 시 1) 신규 투자 이익 수익률 상승으로 전반적인 운용수익률 제고가 기대되고, 2) 이에 따른 보험료 경쟁력이 확대되며, 3) 부채 측면에서는 할인율 상승에 따른 보험 시가 부채 가치 축소로 자본비율 등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 이에 더해 실적 측면에서도 수익성 관리에 따른 장기 손해율 하락세 전환, 손실계약비용 환입에 따른 연간 이익 개선 등 Bottom out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보험주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17) 상반기 중 상호금융 수신 28조원 감소 - 지역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서 올해 상반기 예금이 28조원 감소, 잔액은 903조원을 기록.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93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반기 기준 수신 규모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업권별로는 새마을금고가 12조원 감소하며 가장 크게 줄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 10조원 감소, 신협도 5조원 이상 감소. 이는 같은 기간 은행 예금 증가와 대비. - 전문가들은 상호금융 예금 매력도 저하를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있음. 올해부터 연봉 7천만원 초과 조합원은 예탁금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 이전에는 소득 무관 3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	은행과 다른 흐름 - 일차적 원인은 기업 자금: 상반기 증시 호조로 대변되는 흐름 속에서 개인 자금 중 보다 높은 수익성을 쫓는 자금의 이탈은 불가피. 이는 상호금융과 은행 모두 다르지 않았다고 판단. 다만, 상호금융은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던 반면, 은행 수신은 개인의 결제성 자금 계좌 비중이 높은 만큼 이탈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기업은 오히려 수출대금 유입 등에 따른 수신 증가 요인이 발생한 점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 절세 효과의 중요성 확인: 상호금융 예금 이탈의 또 다른 이유는 절세 효과의 축소. 특히, 수신 금리가 높지 않은 만큼 절세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 이는 역으로 절세 효과 상품에 대한 고액자산가 및 안전 선호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 즉, 상품 구성 입장에서 절세 상품에 대한 고민이, 은행주 투자 입장에서 내년 초 시작되는 비과세 배당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 판단.
	(8/17) 카뱅의 NIM 2% 상회 - 카카오뱅크의 2Q NIM은 2.13%로 13bp q-q 상승한 것은 물론 시중은행들을 크게 상회. - 한편,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와 개인사업자 대출 등 여신 특성이 NIM에 반영된 것이라 해명.	리스크가 높으면 NIM도 높다: 개인 대출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즉, 차주 입장에서 모든 은행들의 대출은 물론 예금금리를 비교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모바일에서 상품 가입까지 가능한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간 NIM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출 포트폴리오에 따른 리스크 격차. 즉, 차주의 신용도가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대출 취급 시, 대출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고, 이는 NIM의 buffer가 커야 함을 의미.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가계 신용대출과 중저신용 차주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CCR도 시중은행의 3~4배에 달하는 수준. 결국 관건은 ROE의 회복: NIM이 높은 수준임은 물론, 빠른 개선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크의 ROE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 이를 위한 관건은 성장률 제고를 통한 레버리지 확대와 CCR과 판관비용률로 대변되는 비용 효율성 제고, 그리고 부수거래 확대를 통한 RoRWA 제고가 될 것으로 기대. 부수거래 확대의 경우, 개인 금융 플랫폼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향후 기업 금융으로의 진출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8/18) KB금융 - 인도네시아 금융지주 설립 승인 - KB금융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OJK)으로부터 현지 금융지주회사 설립 계획을 승인받았음. 이로써 동사는 중간지주 하에 인도네시아 법인들을 하나로 묶는 종합금융 체제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하게 됨. - KB금융의 인도네시아 중간지주는 기존 각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자회사들의 지분을 이전 받게 됨, KB은행의 KB뱅크 인도네시아를 비롯, 증권의 KB발리부증권, KB손보의 KB인슈어런스 인도네시아는 물론, 카드, 캐피탈, 자산운용 등 총 6곳의 지분이 모두 새 중간금융지주로 이전. - 현재 KB뱅크는 현지 기업금융 중심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음. 올해 상반기 지배주주 손실은 29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538억원 손실보다 크게 감소.	여전히 이익 기여도는 크지 않지만...: KB금융의 인도네시아 이익 기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다만, 지난 해까지 적자 우려가 컸던 부분이 점차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계열사간 조율을 통해 플러스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요인이라 평가. 즉, 실적 정상화 역량 증명이 향후 관건: 결국 관건은 향후 실적 정상화 역량의 증명이 될 것으로 판단. KB금융은 경쟁사에 비해서 해외 부문에서의 성과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은행 부문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담은 물론 추가 유상증자 부담이 야기. 하지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결국 금융지주 구조 전환을 통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실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지가 일차적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8/18) 불확실성에 단기 예금 2배 성장 -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기준 만기 6개월 이하 정기예금 잔액은 73조원으로 21년 33조원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 같은 기간 전체 정기예금 증가율은 60%였음을 감안하면 단기 정기예금이 더 빠르게 늘어난 것. - 이는 시장 상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금리 전망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 또한 자금의 이동 용이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이점. -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과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변수 관리 필요.	금리 상승 시기 단골 손님 - 단기예금: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 시기에 예금 투자자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것을 지양. 이에 단기 예금 선호도가 증가. 이에 은행들은 과거에도 회전식 정기예금 등을 출시해서 금리 상승이 자동으로 금리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기를 보다 길게 가져가고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출시한 바 있음. 이번 사이클에서 다른 점은 기업 자금: 다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다른 것은 기업 자금의 유입. 대형 수출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실적 호조에 따른 현금 흐름 개선이 은행의 수신 형태로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들 자금의 경우 얼마 전 카드채 사례와 같이 만기를 특정하는 상품의 출시로 이어진 바 있는 가운데, 기업들 입장에서 유동성 관리와 금리 대응 등을 위한 단기 수신으로의 운용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
	(8/19) 상반기 국내 은행 서민대출 취급 실적 목표치 72% 육박 - 5대 은행의 상반기 새희망홀씨 대출 집행 금액은 2.6조원으로 올해 목표치 3.6조원의 72%를 상반기 중 이미 달성. 참고로,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에게 최대 3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은행권 대표 서민대출 상품. - 이와 같은 성과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올 초부터 포용금융 대전환 정책 추진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 -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당국 주도 포용금융 드라이브의 부작용도 동시에 우려. 특히, 1Q 기준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1.41%로 은행권 전체 신용대출 연체율 0.31%의 4.5배 수준.	하반기 포용 금융 실적 달성 부담 완화 기대: 은행들은 상반기 중 실적을 상당 부분 달성함에 따라 하반기 관련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 향후 관건은 건전성 관리: 다만, 향후 일차적 관건은 건전성 관리. 이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이들 차주의 이자부담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한정된 자원과 2금융권 부담 가중 가능성이라는 부작용도 고려 필요 - 결국 부작용과 순기능의 조율이 관건: 포용금융은 분명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부작용. 일차적으로 은행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를 포용금융에 할애하는 것. 반대로 이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차주를 발생시킴. 또 다른 것은 2금융권. 은행의 서민 금융 상품은 분명 2금융권대비 매력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 이에 2금융권 입장에서는 우량 고객이 은행으로 이탈할 수 있고, 이에 2금융권은 이탈 고객을 잡기 위해 상품 수익성을 낮추거나, 다른 고객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결국 이와 같은 부작용과 순기능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8/19) 가계대출 총량 확대 - 은행별 한도 결정 전망 -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이에 금융권 전체 추가 대출 여력 30조원 추가 발생 예상. -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별 상반기 대출 취급 실적과 기존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 목표를 정할 방침. - 한편,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곳은 집단대출. 금융당국은 집단대출을 개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은행 가계대출 성장을 기여는 제한적 전망: 금번 완화에도 불구하고, 은행 가계대출 성장률 제고 기여는 제한적일 전망. 오히려 상반기 말미부터 7월까지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 한도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던 대출 모집이 다시 완화되는 수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 은행 입장에서 속도 관리가 필요: 더 나아가 은행들의 입장에서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하반기 대출 한도는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 내년을 생각한다면 하반기도 속도 관리가 필요. 또한, 은행들은 자본비율 관리를 통해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과징금 이슈 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자본비율 및 실적 부담이 잔존해 있는 상태인 점도 고려 필요. 결국 핵심은 여전히 기업금융: 즉 은행의 성장에 있어 핵심 축은 여전히 기업금융이라 판단. 이에 향후 기업 부문에서의 CAPEX 투자 등 보다 양질의 수요 회복과 더불어 은행들의 경우 RoRWA 중심 경영 기조 하에서 기업과의 부수거래를 어떤 은행이 얼마나 늘리는지에 보다 초점이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8/20)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89% 급감...모의거래 의무화에 배율 조정론까지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89% 급감하며 시장이 급속히 위축. - 8월 20일부터는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 이수가 의무화되어 진입 장벽이 추가로 상승. - 규제 도입 당일 회전율은 평균 52.5%로 기존 160% 대비 급락했고, 거래대금도 11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축소. - 일각에서는 시장 위축이 과도하다며 레버리지 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하반기 브로커리지 이익 둔화 불가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 직후 전체 ETF 거래대금의 36%를 차지하며 상반기 거래대금 급증을 견인한 핵심 동력이었던 만큼, 89% 거래 급감은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 기반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요인으로 판단. 이에 더해 모의거래 의무화 등 신규 투자자 진입 장벽 강화로 거래량 위축 국면이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구조. 다만, 배율 탄력 조정론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경우, 거래대금 회복의 촉매가 될 수 있어, 관련 논의 진전 여부를 선행 지표로 점검 필요.
	(8/19) 조달금리 연 4% 육박...증권사 발행어음 '속도조절' 국면 진입 - 발행어음 금리가 연 4%에 육박하며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증권사들이 잔액 축소에 나서는 흐름. - NH투자증권 발행어음 잔액은 6월 말 8조7,751억원으로 3월 말 대비 3,987억원(4.3%) 감소하며 2분기 연속 축소, KB증권도 11조31억원으로 4,542억원(4.0%) 감소. 한국투자증권은 22조4,679억원으로 8,329억원(3.8%) 증가에 그쳤고, 자기자본 대비 한도 소진율은 지난해 말 96%에서 2분기 말 81%로 하락. - 규모 확대보다 수익성에 집중하는 기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	발행어음 성장 스토리의 변곡점, 조달 스프레드가 관건: 발행어음은 그간 증권사 수신 기반 확대의 핵심 성장축이었으나, 조달금리 4% 국면에서는 운용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확보가 어려워지며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관리가 핵심인 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잔액 축소는 단기적으로 이자수익 기반 위축을 의미하나, 역마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중장기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는 합리적 대응으로 평가. 한투의 한도 소진율이 96%에서 81%로 낮아진 점은 업계 선도 사업자조차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시사하며, 향후 금리 방향성이 발행어음 사업 재확대 시점을 결정할 핵심 변수. 2028년 조달자금의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 규정을 감안하면 고금리 조달 자금의 운용처 확보 부담도 병행 점검이 필요.
보험	(8/21) 보험사 해약환급금준비금 부담 급증...22년 연속 배당 교보생명도 '긴장' - 주요 9개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상반기 말 41조6,599억원으로 집계되며, 상반기에만 8조9,246억원이 추가 적립. - 1분기 3조7,352억원에 이어 2분기 5조1,894억원이 더해지며 적립 속도가 오히려 가속. -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7조3,045억원, 신한라이프 5조6,492억원, DB손보 5조2,752억원, 삼성화재 5조2,170억원, 현대해상 4조3,603억원 순. - 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가능이익을 잠식하는 구조로, 22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교보생명마저 배당 지속 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	해약준비금 완화 여부가 보험주 리레이팅의 최대 변수: 정부가 내년 기본자본비율 규제 도입에 맞춰 대량해지율 가정을 현행 80~100%에서 30% 전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제도 개선이 현실화될 경우 배당 재원이 대규모로 해제되는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 다만 실제 적립비율 완화 폭에 따라 회사별 배당 재개 시점은 크게 달라질 전망. 다만 K-ICS 비율이 완화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는 수혜에서 배제될 수 있어, 자본비율 수준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국면.
	(8/19)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합병 추진...자산 55조 대형 생보사 탄생 -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합병을 추진, 총자산 약 55조원 규모의 대형 생명보험사를 출범시킬 계획. - 합병이 완료될 경우 생보업계 상위권 진입이 가능해지며, 우리금융은 증권·보험을 모두 갖춘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 - 두 회사의 중복 조직·전산 통합을 통한 비용 효율화와 CSM 기반 확대가 기대되나, 상이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계리 체계의 통합이 과제로 지목. - 보험업 M&A 시장에서는 롯데손보 등 잔여 매물의 매각 난항과 대조되는 흐름.	생보 시장 재편 가속, 규모의 경제가 생존 조건으로: 자산 55조원 규모 생보사 출범은 IFRS17·K-ICS 체제에서 규모의 경제 확보가 생존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위권 생보사 간 추가 합종연횡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합병을 통한 CSM 기반 확대와 판관비 효율화는 중기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나, 계리 체계 통합 과정에서 가정 일원화에 따른 일회성 CSM 조정 가능성 등도 점검 필요.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증권에 이어 보험까지 확보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의미가 크고, 그룹 전체 ROE 제고 기여 여부가 향후 지주 밸류에이션의 관건. 한편 대형사 중심 재편이 가속화될수록 자본 열위 보험사 M&A 매물의 매각 난이도는 더욱 높아지며 업권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8-24 (월)		미국 7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
2026-08-25 (화)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7월 신규주택매매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미국 6월 주택가격지수 미국 6월 S&P 코어로직/CS 주택가격지수 미국 8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미국 8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2년 만기 국채 입찰 독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 독일 8월 IFO 기업환경지수 일본 6월 경기동향지수
2026-08-26 (수)	6월 인구동향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	미국 7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2분기 GDP 수정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7월 내구재주문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5년 만기 국채 입찰
2026-08-27 (목)	금융통화위원회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7년 만기 국채 입찰 유로존 7월 총통화(M3) 공급 독일 9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중국 7월 공업이익
2026-08-28 (금)		미국 8월 시카고 PMI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미국 8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독일 8월 실업률 영국 8월 주택가격지수 일본 8월 도쿄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8월 소비자신뢰지수 일본 7월 실업률 일본 7월 건설수주 일본 7월 신규주택착공건수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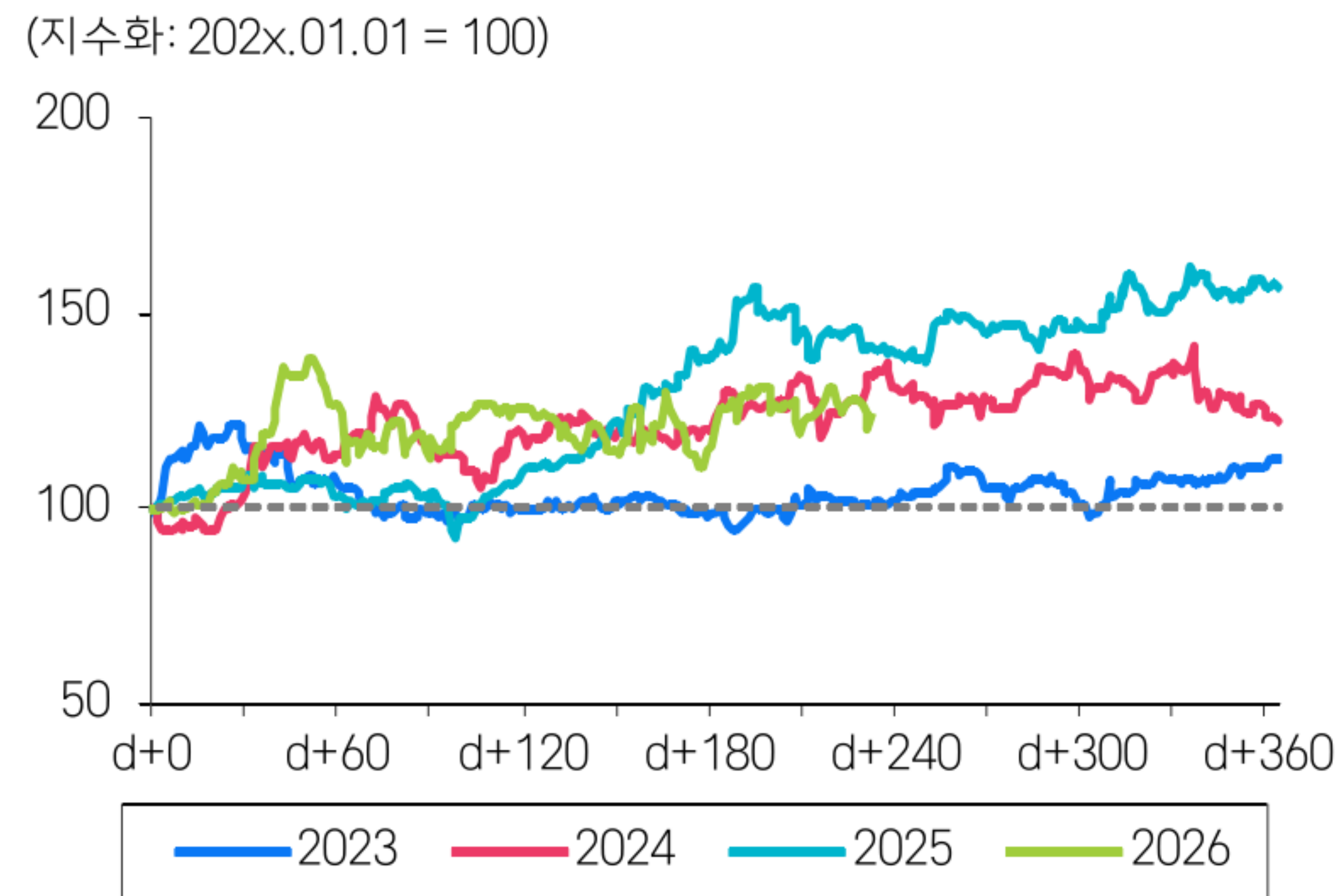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조원)	주가 (원)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5,519.0	6,913.0						(0.9%)	1.7%	120.0%	64.0%
	KRX은행	204.2	1,603.6						(3.5%)	(2.3%)	36.2%	23.0%
	KRX증권	63.5	1,845.3						(7.0%)	(8.7%)	47.7%	20.6%
	KRX보험	126.7	4,395.8						3.9%	11.6%	78.7%	64.2%
	결제 지수*	1,310	n/a						0.3%	14.4%	4.6%	(0.2%)
은행	KB금융	58.3	164,300	55.4	1.0	12.1	8.4	19.9	(2.5%)	(6.2%)	49.8%	31.8%
	신한지주	48.9	104,100	52.9	0.9	10.9	8.4	22.0	(3.1%)	(0.4%)	55.4%	35.4%
	하나금융지주	35.3	128,800	50.0	0.8	10.9	7.8	15.1	(3.2%)	(2.1%)	55.4%	36.9%
	기업은행	15.9	20,000	36.0	0.5	8.7	6.1	3.7	(2.0%)	(3.4%)	3.8%	(4.5%)
	BNK금융지주	4.4	14,310	44.7	0.4	7.7	5.4	2.2	(5.4%)	(19.5%)	(0.3%)	(9.8%)
	JB금융지주	5.0	26,600	43.2	0.5	9.5	5.1	22.4	(5.0%)	0.0%	15.7%	3.7%
	iM금융지주	2.7	17,180	50.9	0.9	13.1	6.7	5.2	(1.7%)	(1.9%)	23.2%	10.5%
	카카오뱅크	10.2	21,300	50.0	1.4	8.9	16.4	28.6	(4.1%)	(1.2%)	(15.5%)	(1.4%)
증권	미래에셋증권	19.3	34,500	25.8	0.9	23.6	5.6	130.6	(8.4%)	(8.2%)	93.7%	48.4%
	NH투자증권	9.6	26,100	41.6	0.9	16.4	5.7	57.2	(9.2%)	(10.2%)	38.5%	23.7%
	한국금융지주	10.3	184,500	24.6	0.8	22.9	3.9	44.6	(9.6%)	(14.2%)	47.2%	14.1%
	키움증권	7.0	268,000	28.9	0.9	23.9	4.3	54.1	(10.8%)	(11.7%)	36.9%	(7.4%)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9.3	115,400	51.7	1.3	23.1	6.2	9.7	(1.1%)	0.9%	(10.5%)	2.0%
	삼성화재	29.5	661,000	42.0	0.7	8.1	9.4	30.8	7.5%	4.9%	49.5%	33.0%
	삼성생명	65.7	328,500	35.0	0.5	4.7	11.1	88.5	9.1%	2.7%	135.7%	108.4%
	DB손해보험	11.6	177,800	30.3	0.8	13.9	5.8	11.4	0.6%	7.5%	37.4%	35.6%
	한화생명	4.8	5,470	10.8	0.3	6.8	4.7	6.9	(2.8%)	23.5%	76.2%	68.0%
	현대해상	4.2	49,750	13.5	0.5	16.6	3.3	8.0	9.7%	34.1%	81.6%	61.5%
결제	카카오페이	5.7	42,500	n/a	n/a	6.5	51.8	145.0	(5.9%)	3.2%	(31.6%)	(13.4%)
	NHN KCP	0.6	14,180	n/a	n/a	17.3	10.1	23.9	(6.6%)	19.4%	2.8%	(4.9%)
	KG이니시스	0.3	10,000	n/a	n/a	6.7	5.3	8.6	(1.6%)	8.1%	(2.2%)	(2.2%)
	KG파인애플	0.2	4,020	n/a	n/a	10.3	1.2	12.1	(4.3%)	2.8%	(21.2%)	(14.5%)
	나이스정보통신	0.3	6,860	n/a	n/a	6.4	6.5	0.9	21.8%	18.1%	53.5%	35.3%

참고: 8/21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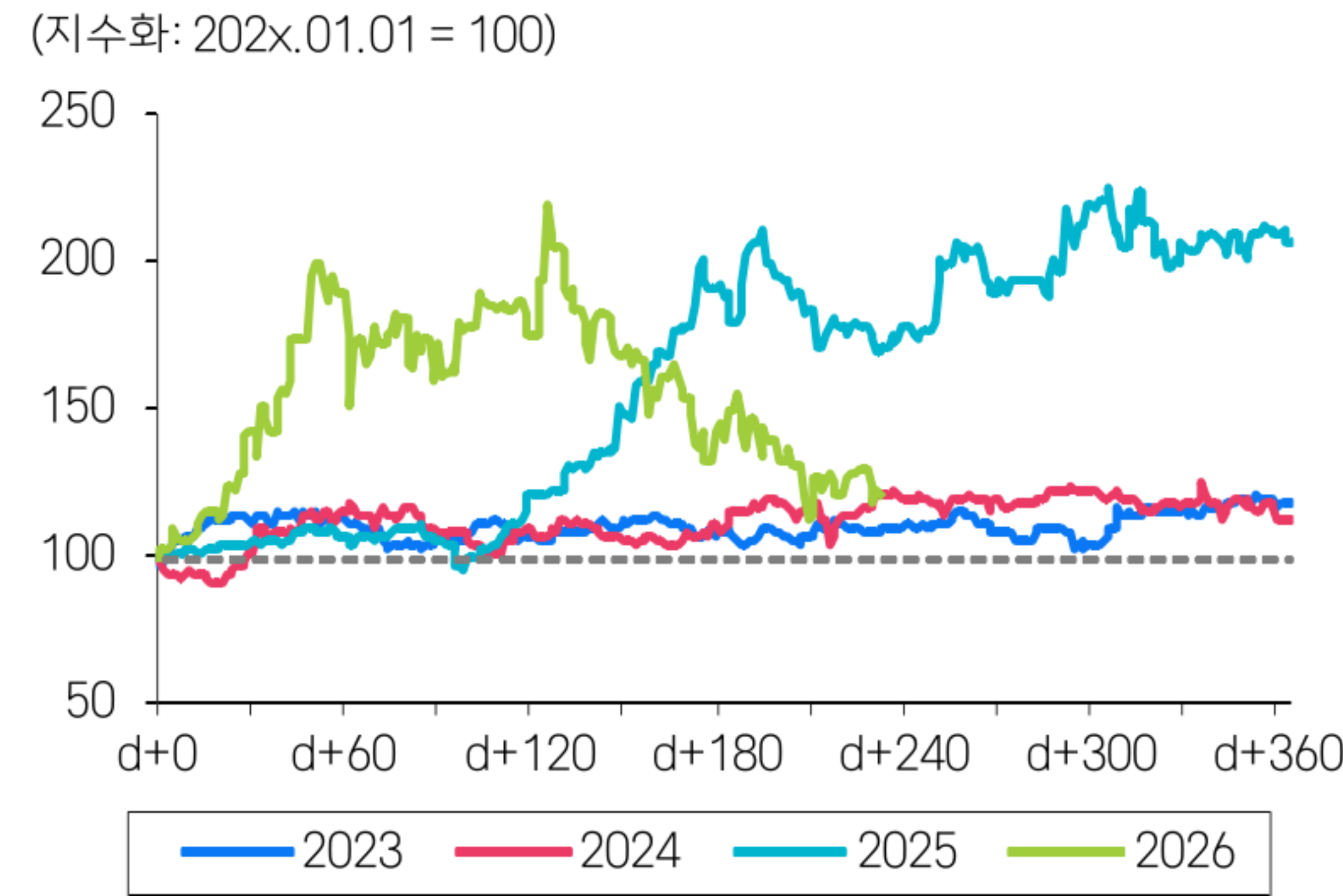
1.4 추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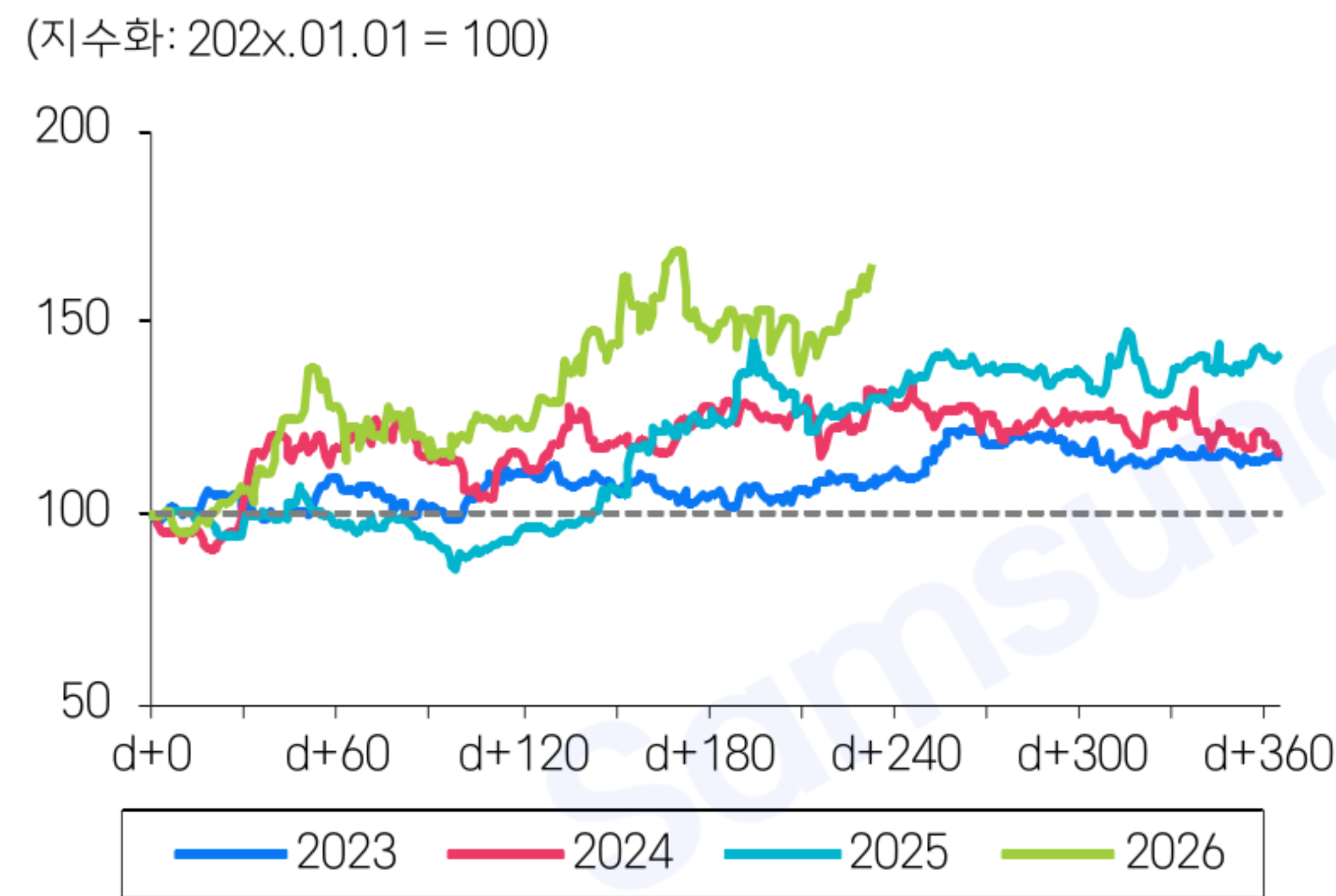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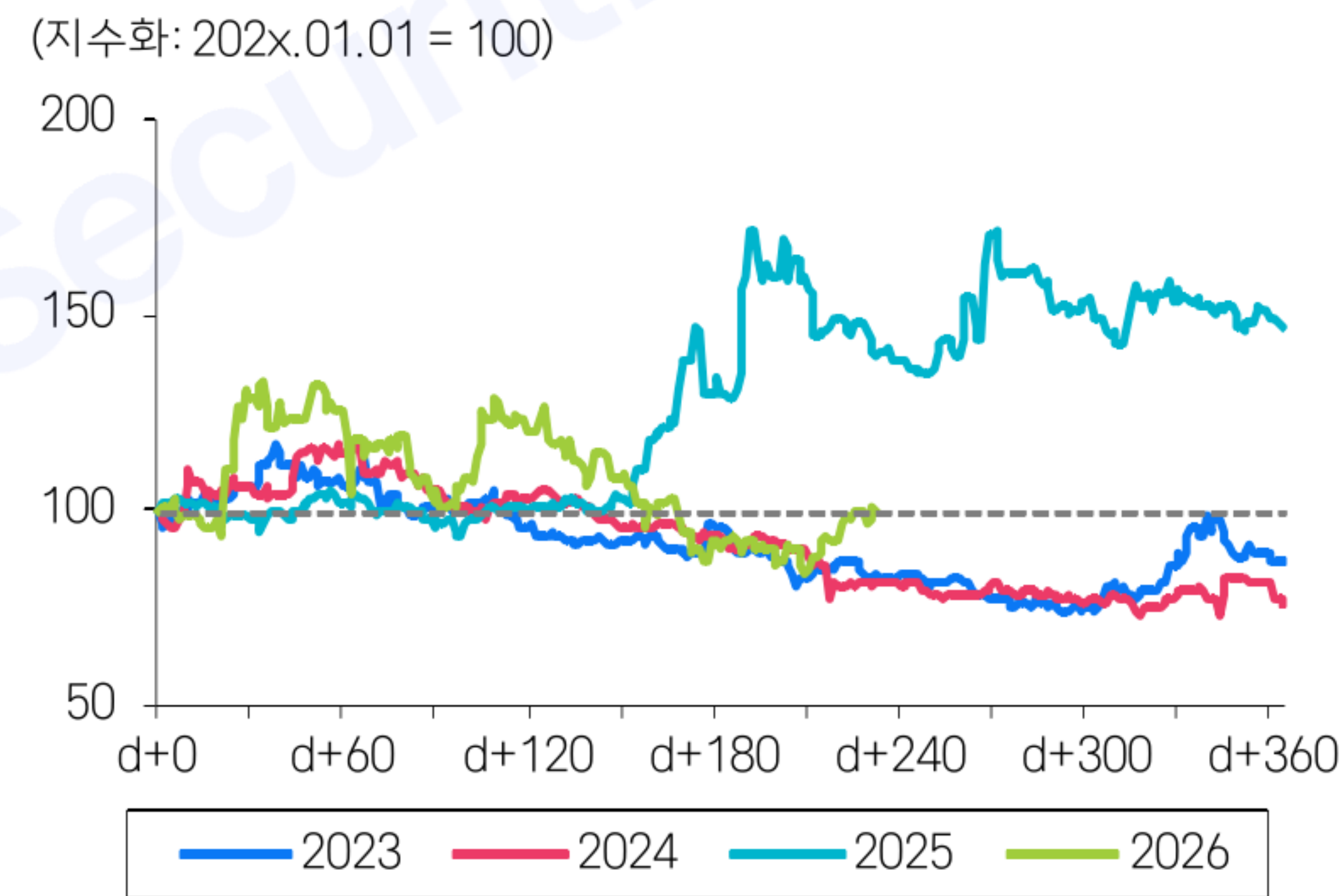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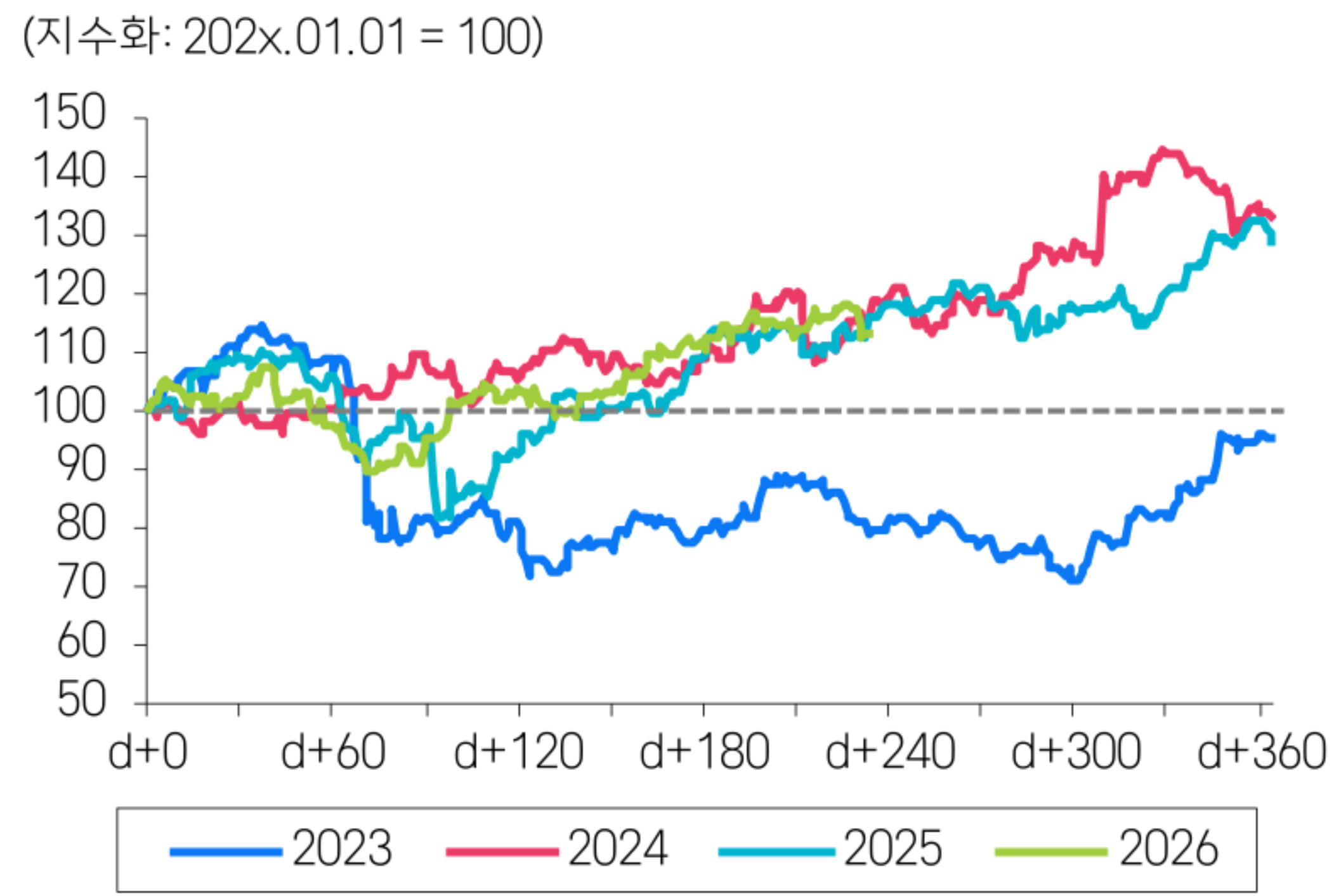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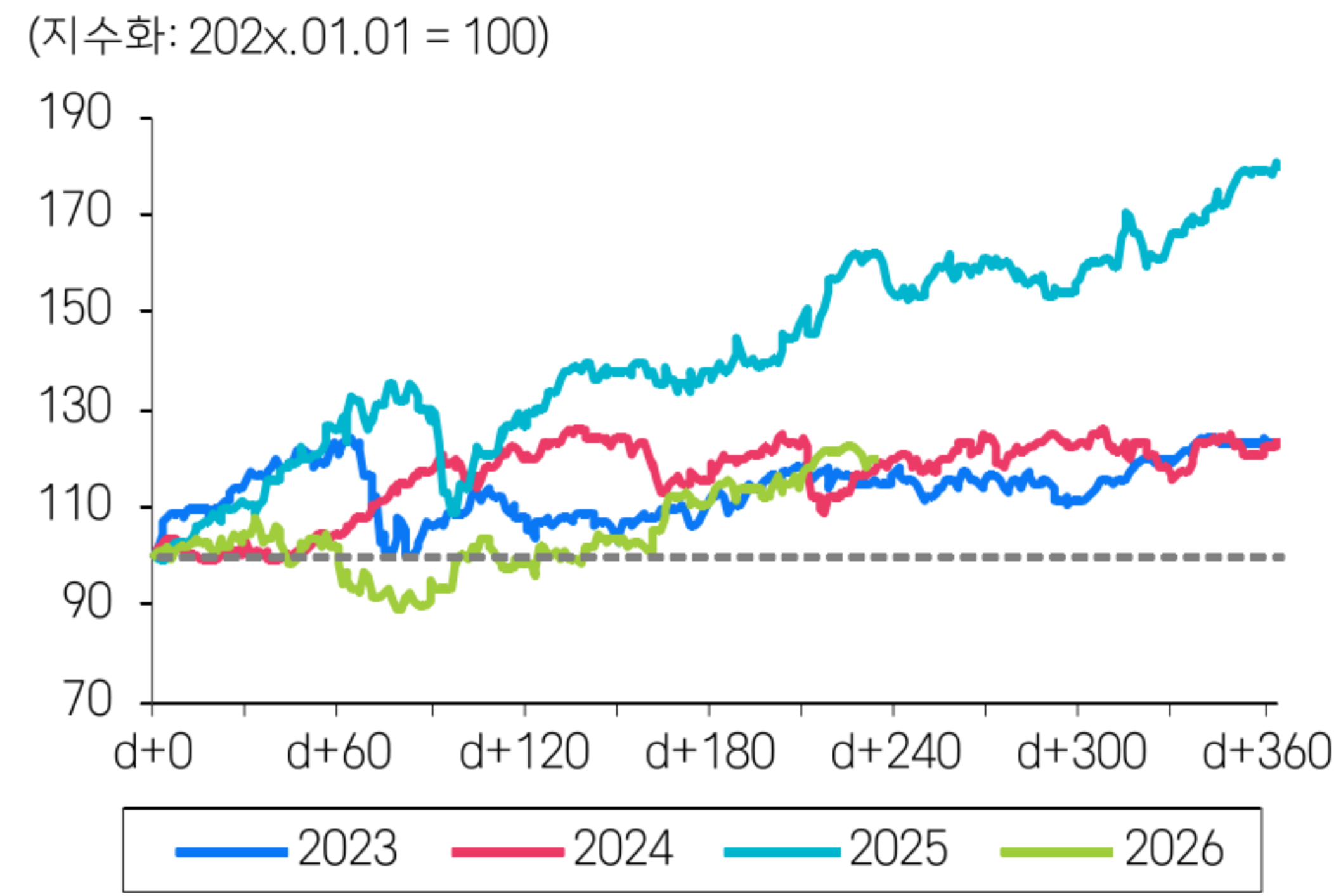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ver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934.6	70.4	2.5	18.8	14.1	24.4	(3.1)	0.5	18.7	9.1
		Bank of America	431.4	98.0	1.5	12.2	13.3	22.1	(4.3)	0.7	24.7	12.2
		Citigroup	220.8	116.5	1.1	10.0	11.9	58.7	(5.5)	(0.2)	38.2	12.8
		Wells Fargo	253.5	87.7	1.5	13.3	11.4	17.2	(5.6)	(2.7)	6.0	(10.0)
		PNC Financial	97.0	72.1	1.6	13.2	12.9	14.0	(5.4)	(2.5)	20.5	16.5
	유럽	Banco Santander	220.2	65.4	1.7	13.8	11.6	13.0	(2.7)	4.8	50.9	24.6
		Unicredit	146.3	78.7	1.7	16.4	11.0	7.2	(2.6)	3.2	20.0	17.1
		BBVA	161.8	93.3	2.3	19.7	11.8	19.5	(0.5)	8.6	50.8	23.8
		ING Group	100.1	87.3	1.7	13.9	12.0	17.2	(3.4)	3.0	40.9	25.1
		Lloyds	88.2	82.8	1.5	14.0	10.2	42.5	(3.4)	(1.1)	32.3	13.2
		Barclays	90.6	71.4	1.0	10.7	9.1	20.3	(5.4)	(5.2)	30.9	3.5
	일본	Mitsubishi UFJ FG	262.0	50.2	1.7	12.1	14.1	16.7	(4.8)	(6.6)	53.1	40.7
		Sumitomo Mitsui FG	158.0	62.0	1.5	11.0	13.9	15.6	(5.2)	(7.8)	60.1	31.0
		Mizuho FG	124.7	57.2	1.6	12.6	13.7	17.3	(5.9)	(6.3)	68.4	42.3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94.4	29.9*	0.6	9.0	7.3	3.1	4.3	4.0	25.4	18.8
		China Construction Bank	316.7	29.9*	0.6	9.6	7.0	1.8	5.8	5.3	19.3	20.2
		Agricultural Bank of China	346.6	29.8*	0.7	9.9	7.7	4.1	7.5	6.8	14.2	8.7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56.5	N/A	1.4	6.5	18.8	(15.2)	(1.6)	0.9	1.2	(1.5)
		AIG	39.8	89.4	0.9	10.1	10.6	흑전	(0.7)	(2.6)	(8.7)	(11.0)
		Travelers Insurance	75.8	82.6	2.2	22.0	10.6	25.3	(1.8)	(3.4)	31.6	25.3
	유럽	Allianz	195.9	81.4	2.7	18.3	14.4	10.9	(0.4)	3.2	18.2	12.9
		AXA	106.8	60.2*	1.9	17.3	10.5	(8.0)	(3.0)	(2.5)	2.7	6.7
		Generalli	77.1	57.3*	1.9	14.3	13.7	14.2	(2.4)	0.2	24.5	20.3
	일본	Tokio Marine	89.4	49.1*	2.1	14.5	14.4	82.6	(2.6)	(9.5)	11.9	26.3
		Daiichi Life Insurance	40.8	49*	1.5	12.8	12.2	22.3	(4.6)	(7.1)	40.3	37.2
	중국	Ping An Insurance	138.0	34.4*	0.9	14.2	6.6	11.2	2.9	(1.2)	(3.3)	(13.7)
		China Life Insurance	141.3	17*	1.2	22.1	5.4	(4.0)	4.7	(1.3)	13.2	2.5
		PICC P&C Insurance	45.7	37.8*	1.2	13.8	8.6	2.7	5.1	6.9	(12.8)	(1.7)
증권	미국	Goldman Sachs	314.6	97.3	2.7	19.5	14.8	37.3	(0.0)	(3.3)	40.1	18.2
		Morgan Stanley	336.4	65.8	3.0	19.2	16.5	27.1	(1.5)	(0.5)	44.7	20.7
		Charles Schwab	194.2	79.5	4.0	24.9	17.8	35.5	1.1	10.5	17.2	12.4
		Robinhood	97.4	52.3	9.1	18.0	50.8	3.8	13.2	6.4	(1.1)	(4.4)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26.9	84.3	6.8	35.2	19.0	14.8	(1.9)	(1.4)	5.3	(9.2)
결제	미국	VISA	692.8	21*	19.7	67.5	29.5	23.4	1.9	5.5	6.0	5.8
		MasterCard	508.7	17.7*	68.8	237.8	29.6	18.6	2.0	9.5	(3.1)	1.7
		PayPal	52.7	10.5*	2.7	23.8	12.3	(7.3)	(0.2)	9.9	(11.9)	5.4
	유럽	Adyen	39.7	0*	5.2	21.4	27.7	15.2	1.2	34.1	(27.2)	(21.9)
핀테크	미국	Block	49.4	0*	2.1	9.5	49.4	(20.9)	(0.9)	7.4	3.8	26.2
		Upstart	2.9	0*	3.4	16.3	44.9	49.9	(0.4)	9.8	(56.0)	(30.7)
		Affirm	25.8	0*	6.1	11.7	61.7	732.1	(1.7)	8.2	(3.1)	3.5
	중국	LuFax	1.2	N/A	0.0	N/A	(17.4)	흑전	(7.3)	3.0	(54.7)	(45.7)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8/21 종가 기준
* 현금 배당 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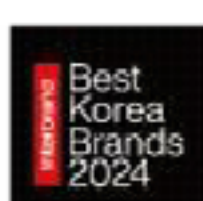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